

第243回国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3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1月14日(金)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정치개혁안에대한의견개진의견

審査된案件

- 1. 정치개혁안에대한의견개진의견 1

(15시14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목요상** 지금 입법조사관의 보고말씀대로 일부 위원님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해 오신 박종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 역사와 시대가 이 정치개혁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개혁위원회 특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음은 黃昌柱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黃昌柱 **委員**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黃昌柱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지도하에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십시오.

1. 정치개혁안에대한의견개진의견

(15시16분)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안에대한의견개진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11월 5일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본인이 회동을 한 결과 각 당에서 지난 11월 12일까지 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 보내 주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넘겨서 의견조율을 자문받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자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위원들의 인선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견례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각 당의 의견을 집약해서 토론을 갖고자 예정을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당론 의견이 제출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선거구제도에 관한 한 아주 시간이 얼마 없어서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서 그 가이드라인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주어야 선거구획정위원회

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될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정개특위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법개정안을 마련해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겨야 최종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3당의 개혁안을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또 그리고 한나라당의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자 의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金容鈞 위원 말씀하세요.

○**金容鈞 委員**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사가 임명이 되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해 주시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어제 11월 13일 되겠습니다. 의장님실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들 유인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치개혁활동관련 보고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3개의 기구를 비교해 놓은 것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보시면 3개의 기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발족한 범정치개혁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근거는 정개특은 국회법 제44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선법 제24조, 범정개협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의장단에서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구성으로 정개특은 위원님이 스무 분이고, 선거구획정위는 원내 4인 원외 5인, 범정개협의회는 원외 11인이 됩니다. 11인 위원님들의 자세한 사항은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권한이 되

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정개특은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심사·의결하고, 소위 말해서 선거구획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결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정개특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바로 본회의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범정개협의회는 단순히 정개특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인데 여기에 직무내용하고 권한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정개특의 자문기구이면서 정개특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할 때…… 11월 5일에 의장단에서 합의하시기를 12일까지 각 당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범정개협의회에다 권한을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모든 안이 왔습니다. 왔는데 한나라당은 아직 의총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개협은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가서 참석한 바로는 이것이 조금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상당히 이견을 낼 것 같은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기한은, 정개특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의장님에게 제출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개협은 사실 정개특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범정개협이 안을 낸 것이 오늘 여기 계시는 정개특 안과 일치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위원** 그것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자문기관이라면서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자문기구입니다.

○**김택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들로 구성되었고 거기는 100% 원외입니다. 그런데 그 원외에서 결정한 안이 위원님들과 전혀 동떨어지게…… 공통분모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택기 위원** 그것을 미리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저는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의 위원장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위원님들 간에 이해가 좀 상충되거나 대립이 되어서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자문기구인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 달라, 그래서 그 조율된 의견을 보내 주면 그 안을 최종적으로 이 정개혁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지으려고 그렇게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당의 당론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에서 독자안을 만들어서 내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당에서 내놓은 당론에다가 하나가 더 보태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당초 의도한 대로 방향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견이 하나 더 불어난 결과가 되지 않나 해서 조율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택기 위원** 지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4당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만일 여기서 결정이 되면 존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경우도 오늘 아침에 전체 의총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 우리 의견이 어떻든 간에 일단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은 현재로서는 수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하나 박세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의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면 다음 달 중순인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께서 좀더 빨리, 안은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결정을 빨리해서 다음 달에는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그 안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金聖順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聖順 委員** 여기 보면 “각 당이 정치개혁안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그랬는데 문구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만든다는 것인지, 자문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목요상** 어차피 법개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갖고 있는 우리 정개혁위에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金聖順 委員** 그래야지요.

○**위원장 목요상** 박종희 위원님!

○**박종희 위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12월 중순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우리 특위에 넘기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일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의견을 내라고 하든지, 사실은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의 금과옥조만 딱 모아서 우리 위원회로 넘기고 자칫 우리 위원회가 정치개혁을 하지 않는 위원회처럼 비추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의견을 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요상**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겠지만 선거구제도에 관한 한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분리를 해 가지고 이달 안에 독자안이 되었던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조율을 했든 간에 범국민정치개혁

협회의 의견을 보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우리 정개특위 전체 위원들이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 12월 31일까지 이 선거구제도에 관한 관계법이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의견을 조율해서 개정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 선거를 치르는 데 엄청난 지장을 가져올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에 의거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얘기가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그 관계부분의 법개정만이라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朴柱宣 위원 말씀하세요.

○**朴柱宣 委員** 지금 한나라당 안이 언제쯤 국회에 제출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이 제출되면 우리 4당이 공통적으로 일치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하기로 하고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라든지 간사협의 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주부터라도 소위원회 별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에 앞서 가지고 간사들끼리 한 번 협의를 해 보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개회라든지 의결에 앞서 가지고 당끼리 서로 협조를 먼저 모색하는 길을 빨리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朴柱宣**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容鈞 委員** 조금 전에 존경하는 朴柱宣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선거구획정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소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이것이 현재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간사 간에 합의해서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소선거구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내용이 대개 전국을 20만 명 평균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거기에서 대개 10만~30만 사이의 선거구를 획정하되 필요한 경우 표준편차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개 10만~30만 사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소선거구제로 하는 경우에 각

당의 의견이 어떻게 된다는지 또 참여하는 당과 참여하지 않는 당이 있겠습니까마는 각 당에서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하는 두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하자는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선거구제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아니하는 한 외곽단체들이 아무리 국회에서 빨리 법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원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외곽의 시민단체 등에서 빨리 왜 정치개혁특위가 정해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해 봐야 거기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소선거구제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일응 한번 각 당 간사 간에 진지하게 검토할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朴柱宣**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못 내고 각 당 원내총무에게 넘겨 가지고 정치적인 협상을 벌여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뺏긴다고 할까요,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4당 간사님들이 우선 각당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율을 해 주시고 그 조율된 결론을 관계소위에서 최종 결리 가지고 전체 우리 정개특위에 올려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각당이 의견을 배출해 가지고, 거기 또 각 당 간사가 다 들어가 있기는 해도 거기서 의견을 자꾸 배출해 가지고 조율이 안 되면 매번 ‘도로아미타불’이 되니까 우선 4당 간사님들이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협상을 전개해서 앞으로 한 2, 3일 안에 결론을 도출해서 소위원회에 넘겨서 최종적인 결론을 낸 것을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朴柱宣 委員**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聖順 委員** 한나라당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런데 다른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 선거구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한나라당에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의원정수 273명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무슨 지구당을 폐지하느냐, 후원회를 폐지하느냐, 선거공영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만 지금 안 나온 상태니까 나는 얼마든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사님들끼리 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맡다 보니까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주 책임을 정하지요. 어느 분이 소집 책임을 맡고서 간사회회의를 해 가지고, 제가 상임위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늦어도 오는 수요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金容鈞 委員** 그러면 18일 오후에 간사회회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18일 오후에 간사회회의를 하시고 19일쯤 전체 선거관계법소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 주시고……

○**朴柱宣 委員** 그것은 간사회회의의 결과를 보시지요.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어쨌든 20일 오전 10시쯤 전체회의를 소집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일정들 보시지요.

○**朴柱宣 委員** 그날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정치관계법개혁안과 관련해 가지고 방송토론도 잡혀 있어서 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어느 날이 좋습니까?

○**朴柱宣 委員** 간사회회의 하는 것을 보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런데 날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朴柱宣 委員** 간사에 의해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정치개혁특위 개최 날짜만 잡아 놓는다고 해서……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를 잡아 놓게 되면 간사님들도 더 열을 내게 되실 것이고……

○**金容鈞 委員** 21일 정도에 하시지요.

○**위원장 목요상** 21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본회의 산회 후에 소집하는 것으로 할까요?

○**金容鈞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목요상** 이런 것에 귀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4당 간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우리 金容鈞 위원님이 저 주시지요.

○**金容鈞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지금 시급하기로는 선거구획정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되 저는 정치개혁 관련법 전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정기국회 내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가지고 필요하면 심야회의를 해서라도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도 그 뜻을 전해서 빨리 좀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늘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회의를 하니까 그런데 안 되면 밤 10시에 회의 소집해서 새벽 4시까지 해서라도 정기국회 전에 끝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일 본회의 산회 후에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요, 그 안에 각 당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지하게 전개해서 결실 있는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선거구제도만 결론이 나면 나머지 선거공영제, 정치자금법 관계 문제, 지구당 폐지문제, 후원회 폐지문제 이런 것은 쉽게 타결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저 나름대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이 선거구제도부터 우선 타결을 해 놓고 그것이 결론이 나면 나머지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다른 문제까지도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出席委員(9人)

金 聖 順 金 容 鈞 김 택 기 목 요 상
 박 종 회 朴 柱 宣 沈 揆 喆 전 재 회
 黃 昌 柱

○請暇委員(3人)

신 기 남 全 甲 吉 천 정 배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李 昌 熙
 전 문 위 원 安 秉 玉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政治改革特別	金龍學		한나라당
		박종희	한나라당

(10월31일자)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政治改革特別	정범구		새천년민주당
		黃昌柱	새천년민주당

(11월12일자)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덕규 의원 대표발의)

(10월27일 김덕규·이낙연·박양수·김홍신·장성원·황우여·권기술·이근진·이해봉·김택기·박상규·안상수·추미애·정대철·이종걸·오세훈·최용규·천용택·신계륜·김희선·임채정·유재건·이부영·정창화·이창복·정동영·안영근·최연희·박진·이상희·김종하·이완구·임종석·이우재·정장선·최병국·송영길·박헌기·심재권·이강래·홍문종·정세균·남궁석·박병석·김형오·유시민·이협·권오을·장영달·이해찬·현승일·신영국·이병석·이강두·전용학·김근태·김부겸·장광근·이상수·전갑길·강창희·고홍길·문석호·홍재형·배기선·송석찬·김태홍·서상섭·김학원·김중호·최영희·박인상·민봉기·임진출·강봉균·김덕배·김영춘·이한동 의원 발의)

10월28일자 회부됨.